

## 국내 유통 브랜드쌀의 품질 특성

윤미라<sup>1\*</sup>, 이춘기<sup>1</sup>, 이점식<sup>1</sup>, 천아름<sup>1</sup>, 정희재<sup>1</sup>, 곽지은<sup>1</sup>, 박향미<sup>1</sup>, 원용재<sup>1</sup>, 이성재<sup>1</sup>

<sup>1</sup>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 [서론]

쌀은 우리나라의 주식 곡물로 막대한 경제적·산업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최소 시장 접근 물량 형태로만 수입이 제한되었던 쌀이 2015년부터는 관세화로 시장개방이 결정됨에 따라 향후 쌀 시장 경쟁이 세계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그에 따라 국산 쌀의 품질 차별화 요구 증대가 예상된다. 최근 국내 식생활 패턴의 서구화와 건강 추구로 육류, 과실류 등 타 식품의 선택폭 확대와 소비 증가로 쌀 소비량은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친환경 경재배 쌀, 품질인증쌀, 기능성 쌀 등 다양한 브랜드 쌀이 제조되어 경쟁적으로 시판되고 있다. 하지만, 1800여개 이상의 브랜드가 유통되고 있는 실정으로 브랜드파워 확보 차원에서 이에 대한 품질 변이와 유통실태에 대한 문제점 및 정보 파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쌀의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지향의 고품질 쌀 유통 실현을 목표로 시중 유통되는 브랜드 쌀의 외관품질 실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 [재료 및 방법]

시험재료인 브랜드 쌀 수집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6년간 수도권과 전국 대도시 매장을 방문하여 직접 구입하였으며, 수집된 브랜드 수는 2010년도에 195점, 2011년도에 186점, 2012년도에 187점, 2013년도에 229점, 2014년도에 160점, 2015년도에 186점으로 구성되었다. 쌀의 품위는 농산물품질검사규격에 준하여 완전립의 경우 쌀의 외관특성상 깨지지 않은 쌀과 깨진 쌀이라도 완전한 낱알 평균길이의 3/4이상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중 분상질립, 열손립, 피해립을 제외한 것의 중량을 구한 후 백분율로 나타냈다. 단백질 함량은 곡물성분분석기(FOSS Infratec 1241 Grain Analyzer, 일본)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 [결과 및 고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국내 유통 브랜드쌀의 완전미율은 85.2%~93.0%로 연차 간 7.8% 정도의 변이 폭을 보였는데, 이는 벼 재배기간 중의 기상 등의 영향인 것으로 고찰되었다. 특히, 6년간 90%이상의 완전미율을 보이는 유통 브랜드쌀 비율은 21.8%~84.6%로 연차 간에 변이가 커 브랜드의 균일한 품질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브랜드쌀의 포장지 양곡 표시사항은 2005년에 신설되어 현재 품종, 등급(완전미) 및 단백질 함량을 표시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등급은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단백질 함량은 임의표시로 전환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포장양곡의 품질 표시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조사치를 평균한 결과, 단일 품종명 표시 비율은 63.0%, 등급(특, 상, 보통)은 30.7%, 단백질 함량(수, 우, 미)은 14.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제품 내에 품종, 등급과 단백질 함량이 모두 표기된 브랜드 비율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평균값이 11.7%이었으며, 2010년도 7.7%에서 2013년도 이후 14%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 [사서]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기관고유사업(과제번호: PJ00923905)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주저자: Tel. 031-695-0606, E-mail. mryoon12@korea.kr